

Daphné Nan Le Sergent

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

다프네 난 르 세르장

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TELIER
HERMÈS

About the artist: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파리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분열과 경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적, 이론적 연구를 지속해 왔다. 주로 사진과 드로잉을 혼합해서, 혹은 서로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병치함으로써 상이한 이미지 영역들 사이에서 (지각적) 긴장을 생성하여 분열과 분리, 경계를 부각시켜온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이러한 분할과 균열을 시선의 내밀한 공간 안에 위치시키면서 이것을 초래하는 지정학적/경제적 조건들에 관해 질문해 왔다.

Born in Seoul, a Korean-French artist Daphné Nan Le Sergent lives and works in Paris, continuing her artistic and theoretical research around notions of schize and borders. By adding drawings on the photographs or by juxtaposing different two photographic images or videos, she generates (perceptual) tensions between different image areas and creates divisions, separations and boundaries. She, thus, deposits the split and the crack in the intimate space of the eye and questions the geo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have engendered them.



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 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Installation view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는 네 안에 있는 사물들의 기억이야. 나는 기억이야.”

개 개인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개 개인의 본질을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결정화되어 침전된 다양한 경험들과 정보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부른다. 기억은 일반적으로 뇌에 받아들인 인상이나 학습되거나 획득된 정보, 또는 과거의 경험들을 간직한 것, 혹은 이것들을 저장하는 능력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저장된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며,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종종 지워지기도, 가끔은 왜곡되기도 한다. 개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이 기억은 때로는 필요에 의해 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뜻밖의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 불현듯, 걸잡을 수 없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소환된 기억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젖히기도 한다.

2029년 이후에는 채굴 가능한 은광(銀鑛)을 더이상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¹ 당연한 얘기지만, 은(銀) 뿐만 아니라 금이나 석유, 구리나 주석 같은 광물 자원들의 매장량은 무한하지 않다. 연제가 됐든, 자원은 고갈될 것이다. 은은 장식용 귀금속 용도나 주화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용 수요이다. 율동한 전기전도성 덕분에 휴대폰, 컴퓨터,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 부품인 메탈페이스트의 주원료로 사용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뛰어난 항균성은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은 할로겐화는 결정체의 얇은 층으로 구성된 할로겐화는 필름의 재료로 활용된다.² 은자원의 고갈은 결국 할로겐화는 필름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진다. 아날로그 사진의 종말이다.

불완전한 기억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기억술을 발전시켜 왔다. 르네상스 시기의 위대한 발명품인 원근법은 인간의 눈으로 인식하고 파악한 모든 대상을 2차원의 회화 평면 위에 그대로 재현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의 탄생 키이다.³ 이 원근법을 통해 종교나 역사의 이야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평면 위에 기록되었고, 기억에 각인되었다. 19세기에 발명된 사진술은 이 원근법적 세계관을 계승한다. 사진은 그 어떤 장치보다도 완벽한 기억의 저장을 보장한다. 인간의 눈을 카메라의 렌즈가, 인간의 내면에 가라앉은 기억의 침전물을 인화지에 응결된 할로겐화는 결정체가 대체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지나친 과장은 아닐지 모르다. 단, 이러한 시각 도구, 기억술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항해 시대의 서구 탐험가/정복자들은 인도에 다다르기 위해 서쪽으로 서쪽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들이 인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뜻밖에도 엄청난 은광으로 가득한 천국을 마주한다.⁴ 그곳에서 채굴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은 그후 200년간 서구로 반출되어 정복자들의 막대한 부(富)를 축적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렇게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정비하고, 새로운 교역로

1. 연구자에 따라 고갈 시점 예측에 얼마간의 오차가 존재하지만, 은의 고갈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2. 빛에 반응하여 사진 상에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로겐화는 결정체이다. 은의 용도별 비중은 대략적으로 산업용이 44.4%, 귀금속(장신구, 식기류)이 22%, 투자용이 19.2%, 주화용(코인, 메달)이 8.8%, 사진재료가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2년 기준)
3. 원근법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의 힘을 빌려 세계를 고정화, 체계화하고자 했던 15세기 르네상스 당시 세계관의 총화(總和)이다.
4. 현재까지도 은 생산국은 여전히 대부분 북미와 남미의 국가들에 분포되어 있다.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 am the memory of things inside you. I am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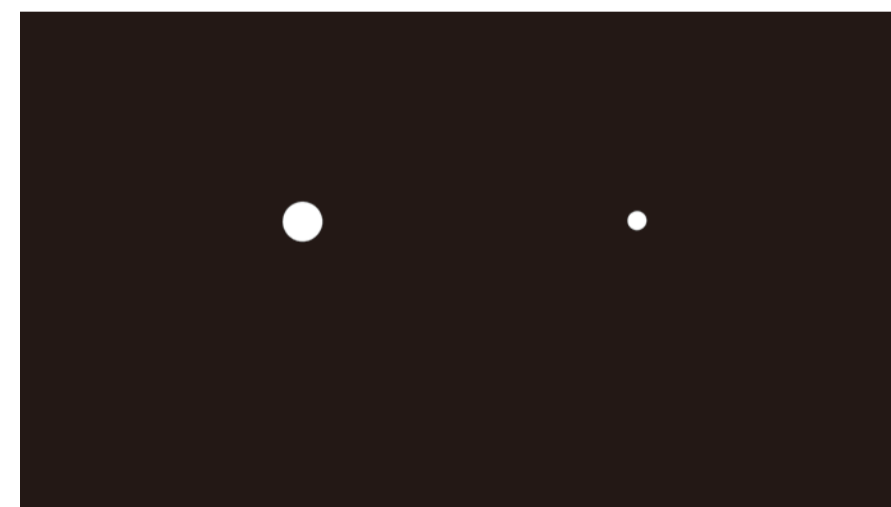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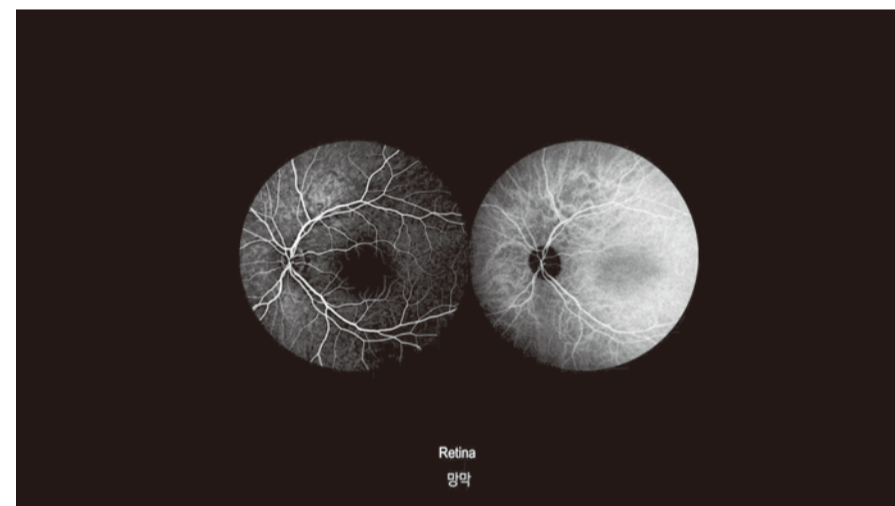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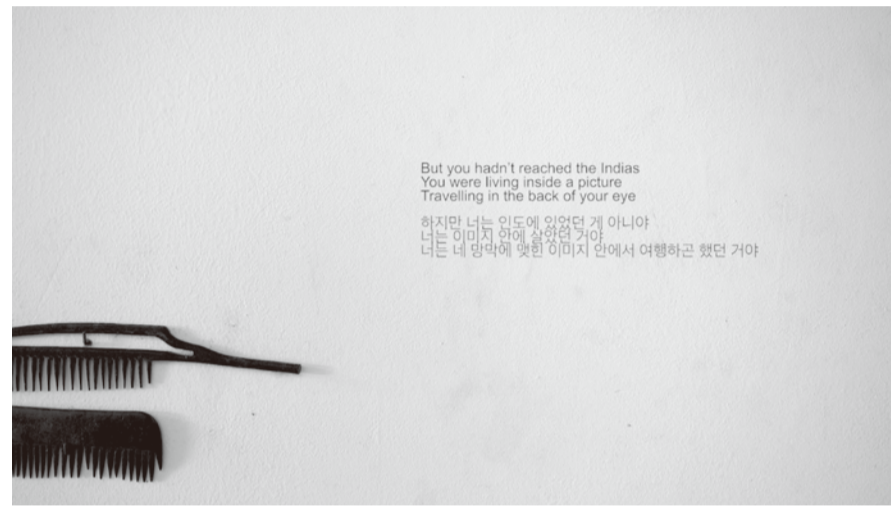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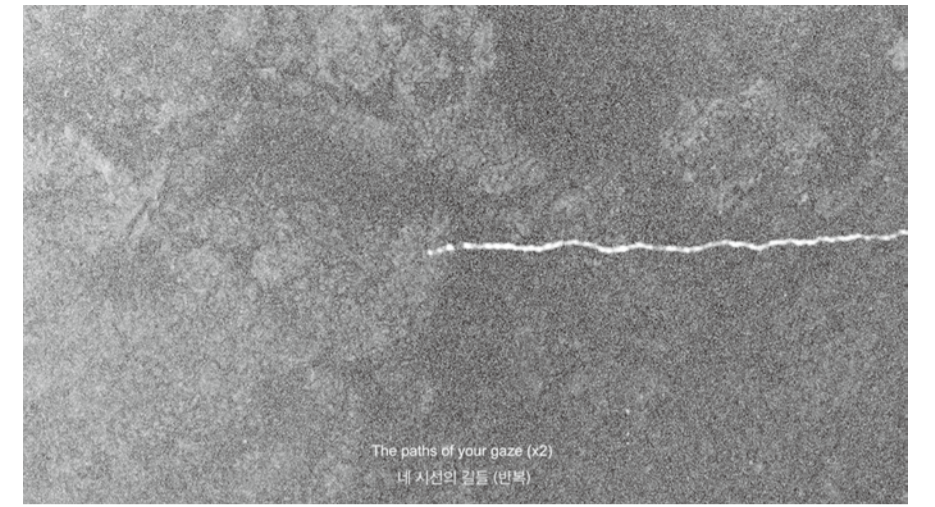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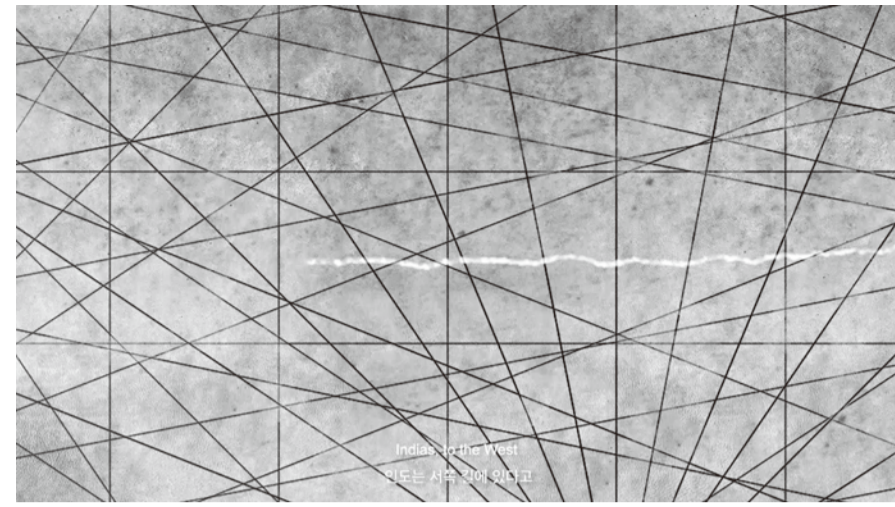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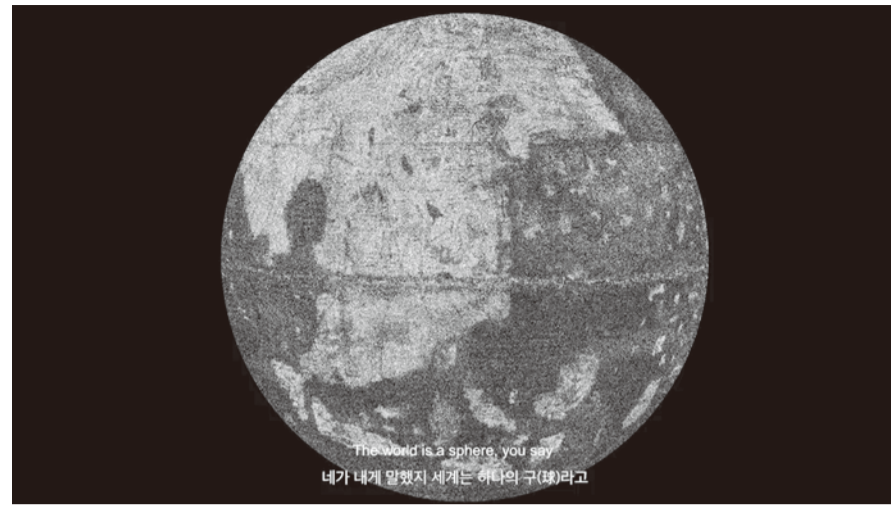
What are some of the core components to comprise the essence of individuals? Some say that the essence of individuals consists of various experiences and information that are crystalized and settle deep within the inner world of individuals. We call this “memory.” Memory refers to an impression embraced by the brain, information that is learned or acquired, the act of keeping in heart one’s experiences of the past, or the ability to store them. The human memory stored as such is incomplete, so the unimportant are sometimes erased and in other times distorted. Such a memory that is formed in the abyss of individuals’ mind is sometimes summoned when necessary, and in other times, it floats relentlessly out of the blue by unexpected incidents and people. And the involuntarily summoned memory opens up the door for a new world out unintentionally.

Some forecast that the currently excavatable silver ore will no longer be discovered post to 2029.¹ Not surprisingly, the reserves of mineral resources such as gold, oil, copper and tin, as well as silver, are not infinite. Resources will be depleted someday in the future. Silver is used for ornamental jewelry or coin or medal making, but over half of its demand comes from industries. Thanks to its superb electric conductivity, it is greatly used for mobile phones, computers, electronic parts and medical devices, and its demand has recently increased as the main material for metal paste, the core component for the solar industry. In addition, its outstanding antiseptic properties have been newly spotlighted in association with high-tech industries. Above all, silver is used as a material for the silver halide films consisting of thin layers of silver halide crystals.² Depletion of silver resources eventually leads to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of silver halide films—the end of analogue photography.

Humans with an incomplete memory have continuously developed mnemonics. Linear perspective as a great invention of the Renaissance period is an omni-potent key to representing and fixing on two-dimensional picture plane all the objects that are perceived of and identified with human eyes.³ The story of religions and history has been recorded on a plane without a single error through the system of perspective, and has been ingrained in the memory. Photography inven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inherits such a world view of perspective. Photography guarantees the storage of a perfect memory more so than any devices. It might not be too much exaggeration to say that silver halide crystals condensed on the photo paper have substituted the sediments of memory that have been submerged in the inner world of humans as well as that camera lenses have replaced human eyes. And yet, let us remember that the visual instruments as such, or the mnemonic techniques were not the absolute and only ones.

Western explorers/conquistadors in the Age of Great Exploration explored a new route westward in order to reach India. They encountered heaven filled up with silver ore unexpectedly on the new land believed to be India.⁴ Thereafter a huge amount of sil-

1. There might somewhat be an error in predicting the timing of depletion depending on researchers, but the prediction that silver ore might deplete so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2. It is the silver halide crystal that enables images to be formed on photos by reacting to the light. Portions of silver for usage are: 44.4% for industrial usage, 22% for jewelry (ornaments and kitchenware), 19.2% for investment, 8.8% for coin or medal making and 5.5% for usage as a material for photography (as of 2012).
3. Linear perspective is the then holistic concept of world view during the Renaissance period in the fifteenth century when people wanted to fixate and systematize the world with the power of science based on infinite trust for rationality of humans.
4. Even today, silver producing countries are distributed in mostly North and Latin Americas.





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 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Installation view

를 개척하고 확보하면서 근대로의 패권을 장악해 나간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입한 오늘날 그 쓰임새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그래서 조만간 고갈될 위기에 처한 은이 15세기 서구인들의 계산 착오로 발견된 그 축복과도 같은 땅으로부터 구대륙으로 이동하였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서구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논리 역시 지나친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1913-1927) 속 주인공은 흥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맛보다가 순식간에 소환된, 잊고 있던 옛 기억에 휩싸이게 된다. 한국계 프랑스인 작가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우연히 은광의 고갈을 예측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순간에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이 잊고 있던 시공간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들을 가로지르고 되살려 재직조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촉발된 질문들은 불연속적이고 파편적이며 비논리적인 연약한, 그러나 동시에 시적(詩的)이고 우아한 고리들로 연결되어 전시 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은의 기억과 기원을 찾아나서는 작가의 여정은 사진의 기억과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과 겹쳐지고, 동시에 사진으로 대표되는 이미지의 기억과 기원을 탐색하는 과정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

어두운 전시장으로 들어선 관람객들은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카메라의 셔터 소리를 따라 펼쳐진 은(銀) 할로겐 입자(2019)로부터 시작되는 작가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은빛 알갱이들이 유난히 도드라지도록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된 은 할로겐 입자를 구성하는 다섯 점의 사진 이미지는 관람객의 시선을 땅으로부터 점차 끌어올려 저 멀리 암석들의 언덕으로 이끈다. 곧 이어, 오른쪽 벽에 걸린 세 점의 포토-드로잉 연작인 시선의 정교함 그리고 희귀한 것에 대한 열망(2019)과 정면 벽에 걸린 일곱 점의 사진 연작 기억의 확실성(2019)은 하나의 표면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재질감으로 관람객의 시각을 분열시킨다. 아메리카 원주민⁵⁾의 선율을 따라 타밀어⁶⁾ 노랫말이 흐르는 영상 우리 내면의 인도를 향한 여행(2019)은 오래전 인도를 향해 떠난 자들이 다다른 신대륙으로 관람객을 안내하고, 마침내 은광산 입구에서 관람객은 은광의 고갈을 예언하는 오래전 마야의 기록 코덱스 2031: 은광(銀鑛)의 종말(2019)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의 서사(敘事)는 은광의 근원을 찾아서, 자신이 위치한 유럽을 중심으로 삼아,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현재로부터 과거로 긴 여정을 시작한다. 이 여정은 표면적으로는 은광의 기원과 그 이동을 좇고 있지만, 그 흐름의 이면에는 은의 부산물인 아날로그 사진의 기원, 기억술로서의 시각 도구와 이미지의 기원과 연관된 서사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동과 서를 가로지르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이 기나긴 여정의 또 다른 축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한 개인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어떤 제스처와 겹쳐진다. 즉, 우연히 촉발된, 그러나 필연적인 이 기나긴 여정은 동쪽-한국-에서 태어나 서쪽-프랑스-으로 입양된 작가 자신의 최초 기억에 각인된 단 하나의 감각을 찾아내고 그것을 연약한 연결고리로 삼아 마침내 자신의 근원에 이르러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 김윤경

5. 남미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프랑스령 기아나와 수리남에 사는 칼리나족.
6. 남부 인도의 언어.

ver they mined there was taken out to the West for two hundred years to serve as the basis for accumulating a significant amount of wealth. They began to gain hegemony towards the modern times by intensifying the military force, and exploring and securing new paths for trade. Silver which is on the verge of being depleted, despite their greater usage toda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transported to the Old Continent from the blessed land where it happened to be discovered out of miscalculation of Westerners in the fifteenth century, driving the world to be engulfed in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West—a logic that cannot be ignored for being over the top.

The main character in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1913-1927) by Marcel Proust (1871-1922) is engulfed by an immediately popped up, long-forgotten memory of the old days while tasting a piece of madeleine soaked in red tea. Korean-French artist Daphné Nan Le Sergent happened to hear news on predicted depletion of silver ore, which enabled numerous tempo-spatial memories forgotten by her to be re-woven by crisscrossing and recovering them. Questions triggered during this course are connected with discontinuous, fragmented, illogical, fragile, yet poetic and elegant chains to be represented in *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It is a journey to find the memory and origin of photography as well as the one to look for the memory and origin of silver, and at the same time, this journey does not exclude the course of searching for the memory and origin of images represented through photography.

The audience entering in a dark gallery joins the artist's journey that begins from *Silver Halide Grains* (2019) that unfold in line with the sounds of valley streams and those of a camera shutters. Five photo images comprising *Silver Halide Grains* produced in an analogue style for silvery grains to explicitly stand out take the audience's vision from the land upwards to a hill of rocks afar. *Preciosity of the Eye and the Desire for Rare Things* (2019) as a photo-drawing triptych hung on the wall on the right side, and *The Certainty of Memory* (2019) as series of seven photographic diptychs hung on the front wall disrupt the audience's vision with a variety of textures that fulfills a single surface. *Travels to our Inner Indias* (2019) along the tune of Native Americans⁵⁾ in Tamil⁶⁾ guides the audience into the New Continent treaded on by the Western explorers to India long time ago, and enables them to encounter *Codex of 2031: The End of Silver Ore* (2019) as records of Maya long time ago that predicted the depletion of silver ore at the entrance of the silver mine.

As such, the narrative of Daphné Nan Le Sergent begins a long journey eastward and westward,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to look for the origin of silver ore with Europe she is located at the center. The journey on the surface traces the origin and movement of silver ore, but behind the flow stands a narrative as a critical axis, being related to the origin of analogue photography as a byproduct of silver, and also the origin of visual instruments and images—the mnemonic techniques. Moreover, another axis of this long journey transcending the present and the past, while crisscrossing the East and the West overlaps with a gesture of tracing back the origin of an individual based on a vague memory. In other words, this long journey incidentally triggered, yet being inevitable is an attempt to seek for a single sense ingrained in the artist's first memory of being adopted to the West—France—after being born in the East—Korea, and to reach her origin ultimately with the search as vulnerable ties.

— Kim Yunkyoung

5. The Kali'na people of French Guiana and Suriname on the northeastern Atlantic coast of South America.
6. A language from Southern India.



여기 마야력의 예언이 있다
침입자의 허연 손들이
유카탄 반도를 정복하고
끝내 유카탄을 쓰러뜨린
여기 마야력이 예언한 연도(年度)들이 있다

1519년
땅이 그들이 내뱉는 말들 아래 불타고
산이 그들이 재촉하는 발길 아래 흔들리는
첫 번째 예언의 시간
정복자들이 우리 광석들을 앗아가기 시작한다

그 태양의 아들들의 수염은 붉다
우리 종(鐘) 위에 말라 붉은 피도 붉다
그들은 동쪽에서 온 아들도
이 땅의 이방인들
오월의 꽃, 프랑지파니가 필 무렵의
회고도
붉은 사람들이다

1566년
새로운 전기가 시작된다
태양이 어두워진 얼굴을 파묻는
검은 바위 속,
침입자들의 욕망이 쇠도하며
보석들이
산 허리로 흐르는
지하 갱도,
여기 말라 붉은 피
은(銀)이 자기 내부에서 타오른다
이트사의 흰 금속
여기 새로운 빛이 있다

흰 돌들의 물결이
우리 산을 굽이쳐 흐른다
경옥(硬玉)과
붉은 돌들이
하늘 아래 사방에서 불탄다

1586년
동쪽에서 온 정복자들은
그들의 왕관에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 돌의 붉은 광기를 두를 것이다
그들의 입술에
태양의 마른 꽃
백색의 커다란 성배들을 가져다 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의 색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동안
은(銀)은 대지의 광대한 영역을
산화시키리라
바다 동쪽, 지구 동쪽에 있는
무굴 제국
초승달의 지배자들은
우리 돌로 만든 망치로
그들의 주화를 주조할 것이다

여기 마야력의 예언이 있다
여기 마야력이 예언한 연도들이 있다
유카탄이 자신을 세계의 젖줄이라 선언하고
모든 이가 우리 흰 산에서 목을 축이는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예언은
그토록 전능한 광석을 기념하는
비석이 되리라

1839년
우리 돌 결정(結晶)들의
새로운 시대가 으르렁댈 것이다
은(銀) 입자들의 광채가 가벼이
먼지처럼 날고
중금속의 증기가
공중에 산포(散佈)되었다가
이미지의 제단(祭壇) 위에
다시 평평하게 떨어지면

브롬화 은(銀)이 재빨리
염지(鹽紙)를 깨무니
도래할 새로운 형태들을 위한
빛의 글
1839년은 연금술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 꽃들의 화분(花粉)이 정신을 안개로 잠식할 것이다
은(銀)의 빛과 사진
그것이 수반하는 말들이
우리 적들의 땅을 흐리게 뒤덮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억을 돌에 새기는
소멸하는 인간들의 치세가 시작될 것이니
사람들은 우리 하상(河床)을 더 깊이 파헤칠 것이고
결국 땅의 입으로 피를 토하게 만들 것이다
은(銀)은 그들의 모든 빛 한가운데에 있노라
태양의 집열판에서 그 힘을 끌어모아
선박, 발전소, 공장을 굴러가게 만들며
그들이 보는 모든 매체의 사진을 존재하게 하노라

2031년
오월의 꽃의 지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 광산의 격류가 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야력의 예언이다
백색 돌의 끝, 붉은 사람들이 꾸었던 꿈의 끝
우리 산에서 채굴되었던 은(銀)의 끝이다
북이 울리고
종이 울릴 것이다
이것이 아날로그 이미지의 끝이 되리라
기억은 여타 분노의 몸짓 없이 저울 것이다



Here comes the Katun counting
Here comes the counting of years
When Yucatan was conquered
When Yucatan tipped over
To the white hands of foreigners

In the year 1519, on Katun 2 Ahau
The first stretch of the initial counting
The earth is scorched beneath their words
The mountain shakes under their step
The lords get ahold of our stones

Red-bearded are the sons of the Sun
Red the dried blood on our bells
Here are the sons of the East
Foreigners of the earth
White men
Red men
At the blossoming of the frangipani flower

In the year Tun 13 Kan, 1566
All of this will come to be
The obscured face of the sun
Buried deep inside the black rock
The underground galleries
Wherein their desires lie
Where precious stones
from the mountain slopes drip
Here is the dry blood
Silver shining at its centre
White metal of the Itzas
Here comes the new light

Rivers of white stones
Down our mountains flow
The jade
The red stones
Burning at the four corners of the sky

In the year 1586
The lords of the East
Will adorn their brows
Their crowns
With the red madness of our stones
The parched flower of the sun
Great white chalices
To their lips elevated
May the fountains of the sky
Never run dry

Come that time
Silver will oxidise
Earth in all its vastness
The Lords of the crescent moon
The Moghol empires,
To the Eastern end of the sea
Of the land
Will mint their coins
With the hammer of our stones

Here comes the Katun counting
Here comes the counting of years
As Yucatan heralds itself the bosom of the world
While our white mountains nurture them all
And the counting of time
Like a headstone
Heightens the power of that rock

Rumble will then
In the year 1839
The new era
Of the crystals strewn from our rocks
The shine of which, so light,
Flies like dust and ashes
Heavy metal fumes
Sprinkling down from the sky
Flatly falling back
On the altar of Image

Swift silver bromide
Bites the salt sheet
A writing of light
For the forms to come
The year 1839 will mark the age of alchemy
The pollen from our flowers befuddling the minds
Photography and the rays of silver
Will tarnish with their speech
The land of our enemies

Then will come the reign of perishable men
Whose memory is set in stone
They will dig deeper down our river beds
And make the mouth of the earth disgorge blood
At the heart of their lights is silver
Loading their big solar panels with its strength
It nurtures their ships, power plants, factories
The pictures in all their magazines

In the year 2031
Will the reign of the frangipani flower end
Will the torrents of our mines run dry
Such is the load of the katun
It will be the end of the white stone and the dream
red people.
It will be the end of silver mining in our mountains
The drums will resound,
Jingle will the bells
It will be the end of analogue photography
Memory will pass with no angry gesture

코덱스 2031: 은광석의 종말 Codex of 2031: The End of Silver Ore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관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과 "시테의 아티스트" 프로그램, 현대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처-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고, 아닉 드 쇼낙이 디렉터를,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 FondationentrepriseHermès
@ fondationhermes
#FondationHermès #에르메스재단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영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수요일 및 추석연휴(9월 12, 13일): 휴관

maison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ès #아틀리에에르메스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 operates nine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and Artists in the Community*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a French-American Photography Commis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ry, the Skills Factory and the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3 - Heart, Head, Hand* is the Fou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s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The *Biodiversity & Ecosystems*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Created in 2008,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directed by Annick de Chaunac and presided by Olivier Fournier.

The Fou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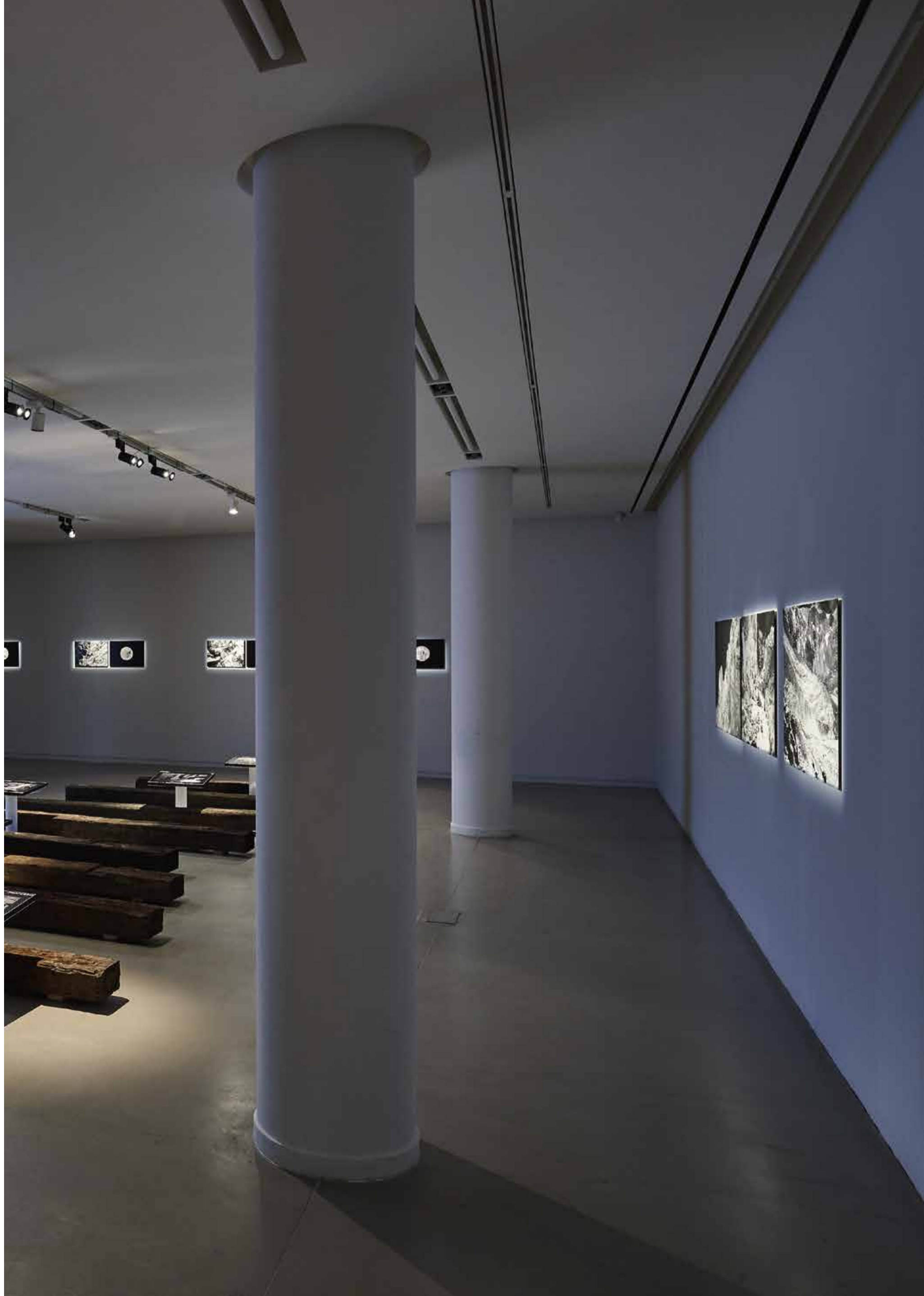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 7 PM
Thursday to Saturday: 11 AM -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 7 PM
Closed on Wednesdays and Chuseok
(September 12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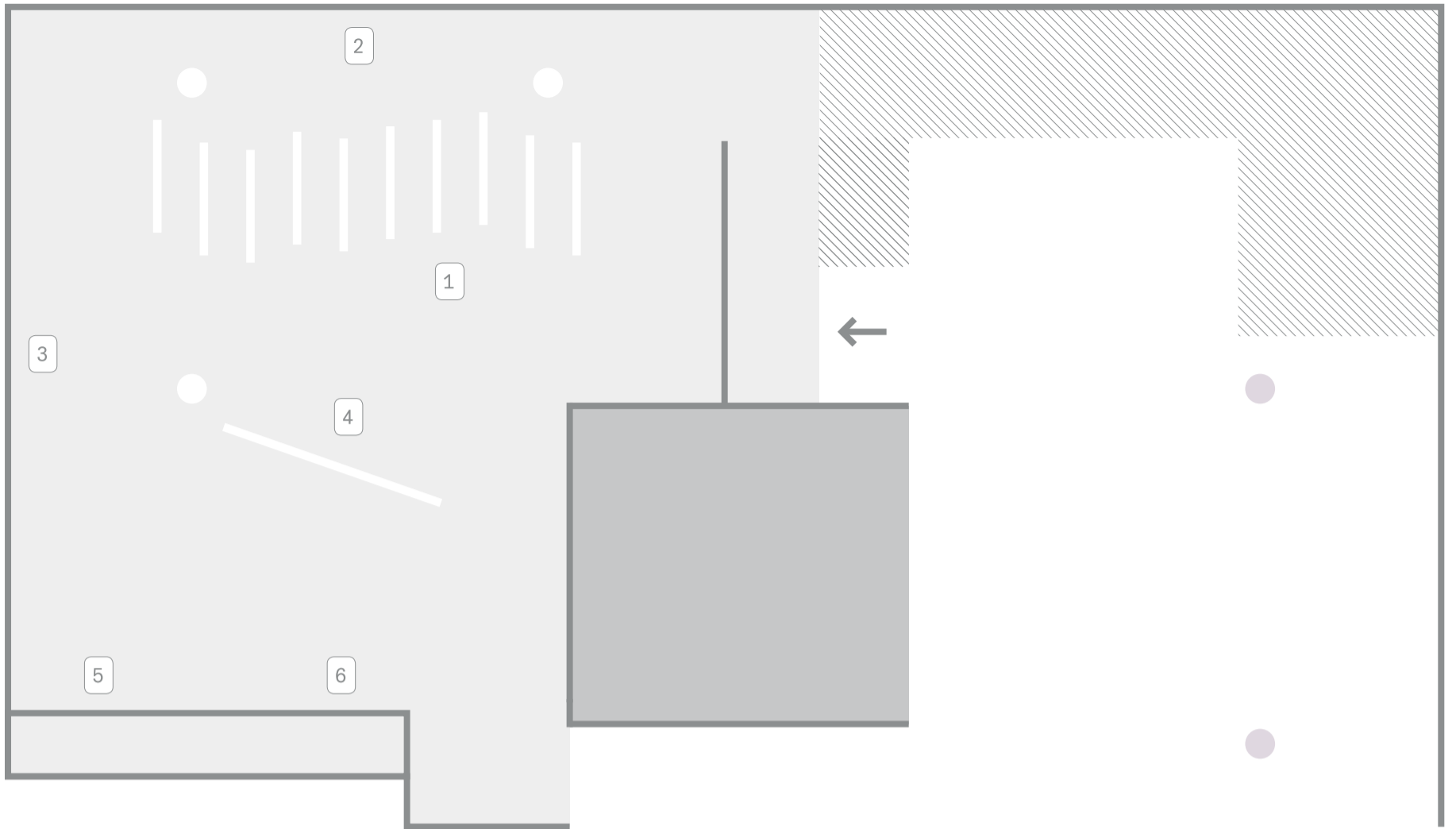
**ATELIER
HERMÈS**

Review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entitled *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by Daphné Nan Le Sergent held at Atelier Hermès from 6 September to 10 November 2019.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Annick de Chaunac
Head of Communications: Sacha Gueugnier
Head of Projects: Clémence Fraysse
Communications Manager: Maxime Gasnier
Projects Manager: Julie Arnaud



Exhibition Curator & Editor: Kim Yunkyong
Text: Kim Yunkyong
Translator: Choi Kiwon
Graphic Designer: Kang Gyeongtak (a-g-k.kr)
Scenographer: Hilgeut
Exhibition Photographer: Nam Kiyong
Artist's Assistant: Marion Baldi



1. 은 할로겐 입자 Silver Halide Grains
2019, Five photographic images (pigment inkjet print), set of ten wooden beams and sound,
Dimension variable
Sound design: Vincent Guiot
Research & print: Atelier Boba, Paris
 2. 시선의 정교함 그리고 희귀한 것에 대한 열망 Preciosity of the Eye and the Desire for Rare Things
2019, Three photo-drawings (pigment inkjet print and graphite), 70 x 110 cm (each)
Research & print: Atelier Boba, Paris
 3. 기억의 확실성 The Certainty of Memory
2019, Seven photographic images (pigment inkjet print and varnish), diptych, 35 x 100 cm (each set)
Research & print: Atelier Boba, Paris
 4. 우리 내면의 인도를 향한 여행 Travel to Our Inner Indias
2019, Two-channel video HD and sound, 14 minutes 9 seconds
Music: Vincent Guiot
Translation: Hervé Couvert (French into English), Hwang Jung (French into Korean)
 5. 코덱스 2031: 은광석의 종말 Codex of 2031: The End of Silver Ore
2019, Blue-black poster, 200 x 280 cm
 6. 코덱스 2031: 은광석의 종말 Codex of 2031: The End of Silver Ore (upper)
2019, Pigment inkjet print and gouache on amate paper, 19 x 111.5 cm
Work co-signed with Jean-Michel Hoppan
Source: Föstermann version of the Dresden Codex famsi.org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soamerican Studies)
Print: Atelier Boba, Paris
- 코덱스 2031: 은광석의 종말 Codex of 2031: The End of Silver Ore (lower)
2019, Pigment inkjet print and gouache on amate paper, 19 x 111.5 cm
Source: Föstermann version of the Dresden Codex famsi.org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soamerican Studies)
Print: Atelier Boba, Paris
Translation: Hervé Couvert (French into English), Hwang Jung (French into Korean)

ATELIER
HER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9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
2019. 9. 6 – 11. 10

아티스트 토크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문의 및 예약: 02-3015-3248)

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September 6 – November 10, 2019

Artist Talk
Saturday, September 7, 2:00 PM – 3:30 PM
(RSVP: 02-3015-3248)